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6년 『도시계획연구회』 개설.

해방 후 한국 국가재건사업의 중요한 정책 중 한 부분이 되는 국민주택의 문화화 및 개량화를 목표로 한 도시문제 및 주택문제를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소였다.

둘째, 1950년 『국회 전문위원』 위촉.

새로운 한국의 건설관련법인 건축법, 건축사법 및 도시계획법의 작성을 위촉받아 이를 수행하여 현 건설관련 법령의 기반을 작성하였다.

셋째, 1953년 『종합건축연구소』 개설.

박길룡선생의 작고 후 그 사무소와 연관된 업무를 인수하여 정리하고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를 있는 건축사무소로 『종합건축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국 국가재건사업과 관련있는 수많은 건축설계를 담당하였으며, 현재 활동중인 우수한 건축가들의 양성소 역할을 하였다.

넷째, 1955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건축부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에 건축부가 설치되도록 정인국교수 등과 협력하였고, 건축이 예술분야임을 사회에 확인시킴은 물론 건축계의 위상을 높였다.

다섯째, 1957년 한국건축작가협회 초대회장.

건축의 예술성을 기치로 하여 작가적 입장을 고수하는 건축가들의 권익보호와 친목을 위한 모임인 한국건축작가협회(현 한국건축가협회)를 창설하였다.

여섯째, 1947년 이후 후진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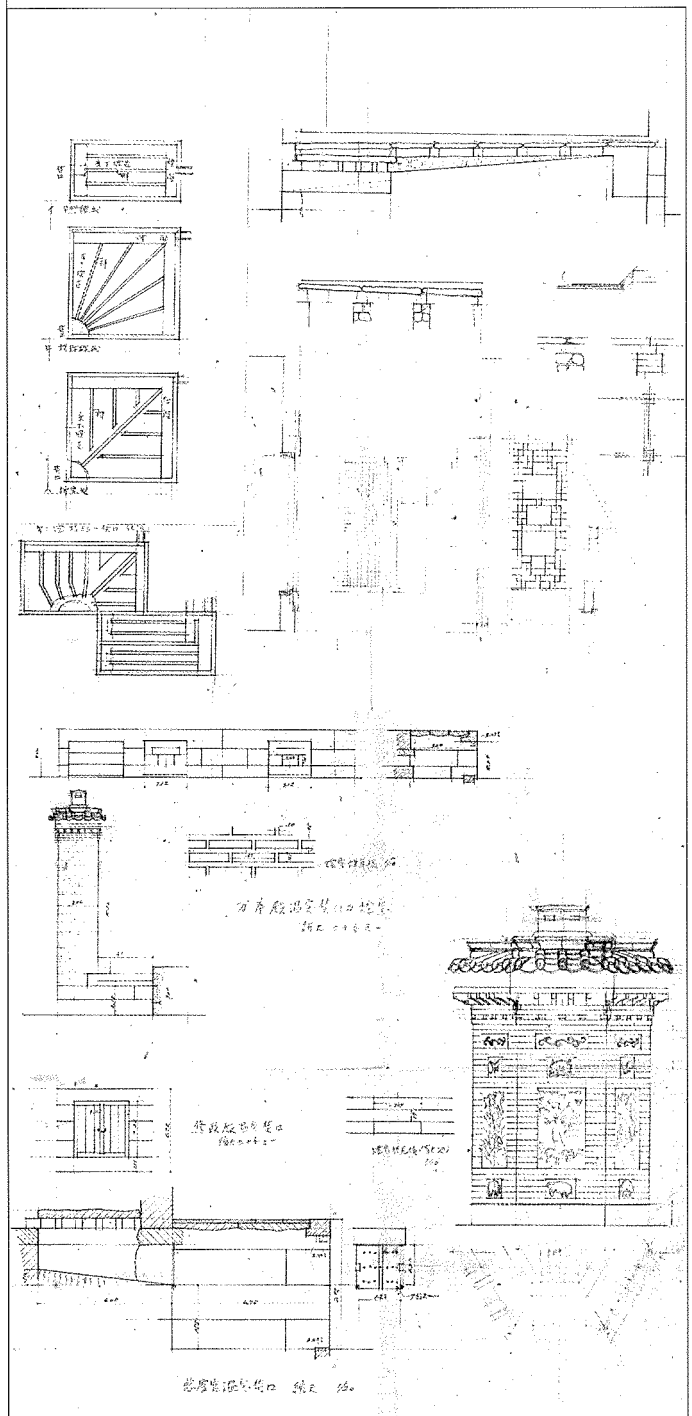
해방 후 건축계의 후진양성을 위해 서울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에 출강하면서 건축관련 과목, 도시계획 및 주거론 등을 강의하였다. 현재 활동중인 대다수 건축가들이 수강하였다.

다방면으로 당시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던 선생의 이와같은 작업들은 새로운 국가건설의 업무 중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었으며 특히 한국 건축계를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기반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업적들이다. 선생이 수행한 이 폭넓은 건축적 업적들은 선생이 한국 현대건축 정착기의 진정한 개척자(파이오니어)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 한국의 모더니스트

선생은 투철한 모더니스트였다. 성장기에 전

통적 유교사상을 중시하던 가정교육과 당시 개화되지 못한 사회 분위기 및 기술중심 교육을 받았는데도, 선생의 사고와 행동은 매우 진취적이었다. 선생은 철저하게 새로운 것에는 무조건적 관심을 기울였고, 새로운 것은 꼭 자기 수중에 넣어야 하는 편집성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어려서부터 잠재된 우월주의적 사고일 수도 있으나 현대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현대산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 안목을 가진 선생의 모더니스트적 습성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도시계획연구회』의 주택운동 개량안 스케치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윤보선 대통령에게 건축작품을 설명하는 선생(좌측에서 2번째가 선생)

영국의 현대화 초기에 생겨난 멋쟁이 주의인 댄디이즘 신봉자들은 자기의 생활 전체를 바로 예술로 인식하고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이 예술로 승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이들과 유사하게 선생은 유독 자기 자신만을 위한 멋쟁이(?) 에고이스트로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것을 즐기는 모더니스트였다. 이러한 선생의 습성은 건축활동에도 표출되는데, 외국여행시 정열적으로 수많은 최신 건축물을 견학하고 사진을 찍어서, 귀국 후 그 장점을 취하여 국내 작품에 그 특징을 활용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리고 당시 한국사회는 보수적 성향이 잠재되어 있어서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수많은 건축을 담당해야 하는 관공서가 특히 심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모더니스트로서의 신념과 노력으로 현대건축의 합리주의적 사상을 이들에게 설득하여 정부가 현대건축을 수용하게 하였다. 선생의 모더니스트적 성향은 건축제작에도 표출되는데 새로운 기능, 새로운 구조, 새로운 재료 등에 대한 집중적 관심으로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새로운 건축이론을 건축작품에 즉시 반영시켰다. 선생의 이와같은 노력은 한국의 현대건축 정착에 초석이 되었으며, 보수성향이 짙던 당시 사회에 현대건축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낸 개척자적인 모더니스트였다.

## 건축사상 및 작품성

해방과 더불어 한국 건축계는 현대건축의 태동기를 맞았는데, 당시 국가재건사업의 조속한 성취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현대건축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부족한 상태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작품 제작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 이승만 대통령 내외의 참관기념 사진(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선생)



선생이 스크랩한 현대화된 실내장식과 가구



동아일보 본사 계획안

이 기간에는 현대건축의 이해보다는 현대건축의 생산에 진력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선생은 공학을 토대로한 현대건축의 기술적 이론을 빠르게 흡수하여 경제적 건축을 지향하였으며, 예술과 기술의 복합체적 건축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한국이 당면한 개국적 상황을 고려하여 항상 『건축의 생산성』을 우위에 두었던 기술자적 건축가였다. 선생의 건축설계 제작방법은 초기단계에 평면과 입면의 분리작업, 즉 기능분석과 평면조직 그리고 의장요소분석과 입면 및 입체구성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작업하고, 이 두 부분을 하나로 짜맞추는 종합화 작업으로 진행시켰는데, 이것은 하나의 건물을 조속히 설계, 생산하는 방법이었다.

이 제작방법은 각 부분별로 능력이 있는 엘리트들의 전문적인 작업에 의해야만 신속하게 건축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선생의 독특한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계방법은 일반적인 건축설계방법으로는 무리한 것이었다. 다만 당시의 조속한 건축설계 생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작방법의 하나였다.

선생은 건축가로서 예술성을 표출하는 건축작품의 창출보다는 한국에 현대건축을 정착시키려는 노력, 즉 새로운 양식의 현대건축을 제작, 소개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선생의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는 기술과 예술의 복합체로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중용적 대상이고, 경천애인이라는 생활관을 바탕으로한 자연중시사상은 건축을 대지의 용기라고 사고한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의 건축관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선생의 수많은 건축작품들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 작업을 담당하 소원들의 개성적 차이와 현대건축을 수용하는 과정적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와같은 현상은 선생의 폭넓은 건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종로 네거리변에 있는 동아일보사옥은 건축당시 3층이었는데, 동아방송 개국에 따라 5층으로 증축된 건물이다. 선생은 증축

건물인 현 동아일보사옥을 기존의 동아일보가 갖고있던 위치적, 인식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기존건물의 건축적 요소(양식, 디테일 등)를 그대로 복제하여서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초기의 건물과 같은 인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현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건축되었던 『우남회관』(시민회관)은 현상설계 당선작이었는데, 건물 전면에 탑을 갖는 비대칭의 외관은 기념건축의 외관으로는 흔하지 않은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 회관은 조형전체에서 보이는 균형잡힌 비례와 질서, 그리고 지하로부터 솟아오른 듯한 힘찬 매쓰의 처리 등과 석재를 사용한 외부에서 풍기는 장중함과 함께 현대성을 표출하였으며, 경복궁을 배경으로한 세종로거리를 활성화시킨 상징적 건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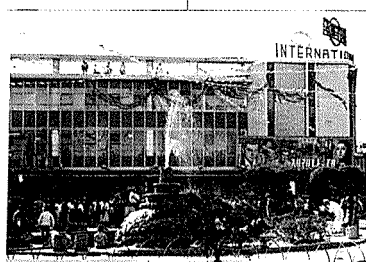
선생의 건축적 사고와 성격을 같이하는 작품은 『국제극장』이었는데, 이 건물은 『르 꼬르뷔제』가 창안한 도미노시스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설계된 것으로, 외부의 독립주와 캔티레버의 구조, 그리고 커튼월로 구성되는 밝고 가벼운 외부형태와, 객석을 스타디움형식으로 구성하여 시원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더한 실내 등, 새로운 현대건축의 맛을 보여준 건축작품이었다. 서양의 입체주의적 건축작품에 관심을 보인 선생은 자주 『리처드 노이트라』의 밝고 건강한 건축, 즉 넓은 유리면을 통하여 건물의 외부와 내부공간이 상호관입하는 건축에 관해 애착을 느꼈으나 선생의 작품에서는 시도되지 않았다.

## 한국 건축계의 리더

선생의 일생을 통한 정열적인 건축활동은 현대건축을 수용해야 하는 한국 건축계는 물론 정부의 국가재건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업적을 남겼다. 일제치하의 한국 건축계에는 박길룡선생의 『경성박길룡건축사무소』가 개설되어 미약하나마 침체되어 있던 한국 건축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한국 건축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 좌표설정도 하지 못하고, 건축인 자신들의 활동영역 및 권익보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루버를 채용한 『신신백화점』



국제극장



우남회관 앞에 선 선생

당시 선생은 정부의 국가재건사업에 직접 관여하여 한국 건설계의 활동을 위한 법령의 작성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건축계에 중사하는 건축인들의 권익증진에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한국건축작가협회를 창설하여 한국의 건축계가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작가협회로 분리되게 하고, 건축인들의 전공특성 및 기호에 따라 협회별로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건축계를 정비하는데도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건축가를 건설기술자로 밖에 인정하지 않던 상황의 한국 문화계에서 대한미국미술람회(국전) 내에 건축부가 신설되게 하고 건축의 예술적 작품성을 한국사회가 인식하도록 진력하여 한국 건축계의 진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선생은 종합건축연구소를 개설한 후 현대건축 이론에 기초한 건축설계를 선도하였고, 훌륭한 후학들을 소원으로 입소시켜 밋밋없는 설계작업을 전개하면서 사회적 명도, 신뢰도를 쌓아 한국 건축계의 중심으로 자리하였다.

선생은 10년 내외의 기간을 한 주기로 하여 한국 건축계를 이끈 건축계 리더들로는 한국 최초의 건축가 박길룡 - 한국의 현대건축가 이천승 - 한국의 현대건축작가 김종업 - 한국의 국제건축가 김수근으로 이어져 있다고 회고하였으며, 선생 자신이 한국 건축계를 위해 공헌한 많은 역할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한국의 건설 초기에 실사이 없이 한국 건축계를 누비며 한국의 현대건축 정착에 전념하였던 그 열정과 거시적 비전,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은 선생이 전체적인 면에서 한국 현대건축계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